

일 주 문



<부처님의 생애> 특유감 대회
조계종 포교원장 혜총 스님은 5월 2일 까지 <부처님의 생애>를 주제로 부처님 오신날 기념 특유감대회 출품작을 공모 한다. 발표 10일 (02)733-6390



무료합동결혼식 봉행
의정부 송산노인복지관 운영지도위원 장 일면 스님은 4월 22일 복지관 3층 강당에서 '제6회 무료 합동결혼식'을 개최한다.



BBS 어린이 찬불가 대회 접수
BBS불교방송 이사장 영담 스님은 5월 5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창사 20주년 기념 제1회 어린이 찬불가 대회를 개최한다.



원혜 스님 하나원 수계법회
공주 마곡사 주지 원혜 스님은 4월 4일 안성 하나원 통일법당에서 수계법회를 열고 새터민 70여 명에게 계사로 수계했다.



전등사기 강화게이트볼 대회
강화 전등사 주지 혜경 스님은 4월 9일 강화 공설운동장에서 '제5회 전등사기 강화게이트볼 대회'를 개최한다.



옥천범용대학생 예수재 특강
태고종 옥천범용대학 학장 기봉 스님은 5월 4일 생전 예수재 특강을 개최한다. (02)392-3234



美불국사선각스님 해외포교법회
미국 세인트루이스 불국사 주지 선각 스님은 4월 18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전통공연장에서 해외포교 활성화 정기법회를 봉행한다.



회암사 성지순례
하북동 공무원불자연합회 회장은 4월 17~18일 구례 화엄사에서 '제19차 성지순례법회'를 개최한다.



제17기 기초불교 영어강좌 실시
박상필 조계종 국제포교사회 회장은 4월 10일~6월 5일 서울 템플스테이센터 3층 문수실에서 제17기 기초불교 영어 강좌를 실시한다.

평화재단 사무실 이전
평화재단(이사장 법륜)은 3월 31일 사무실을 서울 서초 3동 1593-7 서초이오빌 2층으로 이전했다. (02)581-0681

국제불교교류센터 총지사 자리에
총지종 제16대 지성 통리원장 간담회서 밝혀



"총지사 부지 700여 평을 국제불교 교류센터에 위해 내놓겠습니다. 이를 위해 불교계가 범종단적으로 힘을 모아 국제불교교류센터 부지가 원만 회향되기를 기원합니다."

1월 29일 취임한 제16대 총지종 통리원장 지성 종사(사진)는 3월 29일 역삼동 총지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국제불교교류센터는 이명박 대통령의 대선 당시 불교계 공약 사안이다. 마땅한 건립 부지가 없어 공약(空約)이 될 뻔한 것을 최근 지성 종사를 비롯한 총지종도가 마음을 모아 결단을 내렸다.

지성 종사는 "취임 후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종단법 사무총장 홍파 스님(관음종 총무원장) 등을 예방했을 때 다들 분위기가 좋았다"면서 "국제불교교류센터가 들어서면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사무실을 비롯해 국제불교 교류를 위한 공연장 세미나실로 활용될 것"이라며 국제불교교류센터 유치에 강한 자신감을 내비쳤다.

지성 종사는 "대선 후보의 국제불교 교류센터 공약은 2007년 3월 총지종이 개최해 시작된 국제불교교류센터의 영향이 크다"고 강조했다.

지성 종사는 "승지자 복식 통일 등

불합리하고 미비된 종단 법규와 조항, 관행 등을 공의를 모아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종단 교세발전을 위한 공격적인 포교 대책도 공개했다.

지성 종사는 "종단이 최근 서원당(법당) 내 불상 봉안, 만다라 불사, 사원 신축 등을 도모해왔으나 교세 확산에는 진전이 없었다"면서 "불교대학을 교구별로 확대 운영하고, 총지종보 등을 활용한 문서포교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화된 종도의 복지를 위해 생활공동체를 구성하는 방안도 추진 중이다"라고 말했다.

총지종은 속리산 국립공원 인근 종단 소유 부지 70만 평에 100~200평 규모의 하우스를 짓고 종도를 위한 생활공동체 건립·운영을 준비 중이다.

고령화된 종도의 평균 연령을 낮추는 것 또한 지성 종사가 관심을 두고 추진 중인 사안이다.

지성 종사는 "종단 교화 발전을 위해서는 역량있는 도제 양성이 필요하다. 청년회 학생회 구성을 위한 포교활동비 지급까지도 고려 중이다"고 말하고

"불교 고령화의 대안으로 자성학교를 활성화시키는데 종단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도 강조했다.

한편, 지성 종사는 1993년 10월 중앙교육원 아사리 과정을 수료하고 전법관정 수계를 받았다. 같은 해 정혜서원 당 주교와 통리원 재단사무국장직을 시작으로 총무원 기획국장, 재무부장, 총무원장, 총지종유지재단, 사회복지재단 이사, 통리원장 직무대행, 학교법인 주립 관음사 이사, 사감원장 등을 두루 역임한 종사는 대선 민보사 주교에 재임 중이다.

조동성 기자 cetana@buddhapia.com

이정씨 '계간문에' 신인문학상
남북 현실 다룬 '붉은 댕기머리 새'로



前 불교방송 조사자료실장 이정씨(사진)가 <계간문에> 신인문학상 소설 부문에 당선, 소설가로 변신했다.

당선작은 '붉은 댕기머리 새'. 새 싹터를 찾아 고향인 북녘 땅을 도망치듯 떠난 이들의 시선을 통해 총부리를 겨누고 있는 남북의 현실을 드러냈다.

50대 중반의 변신이란 점에 놀랐다. 그러나 이씨는 오래 전부터 꿈꿔왔으며, 더 이상 늦추면 인생이 아까울 것 같아 신인상에 공모했다. 틈틈이 습작을 놓지 않았다. 동국대 국문학과 재학

중 학내 문학상도 수상했다. 정찬주, 황청원 등 문학동네의 중견들과 함께 탁마했다. 이번 신인상 공모에 종편 1편, 단편 5편을 냈다. 그러니까 그는 '오래된 신인'이다. 이씨는 "지난 십삼 년 동안 제 화두는 북한과 북한사람이었습니 다"라며 "강성대국의 도래를 신안처럼 굳게 믿고 꺾어질지언정 휘어지지 않겠다면서 울던 간부도 있었다"고 회고했다. "여건이 허락하는 한 현대사에서 벌어진 이 불행한 형상에 대해서 증언하고자 합니다."

소설가 이동화·백시종씨는 심사평에서 "주제외의 끈을 끝까지 놓지 않는 성실한 필력을 높이 샀다"며 새로운 작가의 등장을 축하했다. 정성은 기자

이정호 교수 경북의사회 학술상 수상

이정호 동국대 경주캠퍼스 의과대학 교수(신장내과)는 3월 27일 경북도의 사회에서 제정된 제1회 학술상을 수상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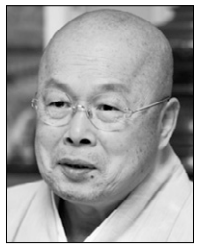
이 교수는 대구 제이시호텔에서 열린 '제59차 경상북도의사회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만성 북막부식 동물모델에서 알라게브리움(Alagebrum)에 의한 북막내 후기당화산물의 분해효과'

라는 대표논문으로 학술상을 받았다. 이 교수는 "항후 북막부식 환자의 북막 기능을 오랫동안 보존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총회에서 이경섭 동국대 경주병원 병원장은 대한의학협회로부터 의료계 발전에 기여로 공로상을 수상했다.

노덕현 기자

"티 없이 맑은 모습에 반했습니다"
미얀마의 날 10주년 행사 준비하는 목탁 스님



4월 16일은 미얀마의 날이다. 아직은 낯설지만, 어느덧 미얀마의 날을 정해 기념식을 올리고 소기의 목적을 거두기 위해 노력하는 시간들이 쌓여 10년이 되었다.

한국-미얀마 친선교류협회(이하 친선협회, 회장 목탁·사진)는 이날 오후 4시 30분 서울 롯데호텔에서 미얀마의 날 선포 10주년 기념식 및 미얀마 전통 의식인 물축제를 봉행한다. 우 모르윈 주한 미얀마 대사(대사)를 비롯한 한국주재 외교관, 친선협회 회원 등 1천여 명이 참석한다. 이날 선우용녀·김흥국·이 의정씨에 이어 불자앨런 김용림·김혜옥씨에게 친선대사 위촉장도 수여한다.

큰 행사를 준비하고 있는 친선협회 회장 목탁스님은 "2600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일깨워준 수행법을 지키

며 물질문명에 물들지 않고 매사를 긍정과 기쁨과 감사의 마음으로 티없이 맑은 청순한 심성을 지니고 살아가는 미얀마의 모든 것을 사랑합니다"라는

말로 소회를 밝혔다. 조계종 중앙상인포교사로 전국을 다니며 부처님법을 펼쳤던 목탁스님이 미얀마와 특별한 인연을 맺은 것은 90년대 초, 미얀마 불교대학에 논문 한편을 제출했는데, 종교성에서 친선협회를 만들어 교류하자는 제안과 함께 초청장을 보내왔다. 능력이 없다면 거절하고서는 잊고 지냈다. 그러던 중 조계종단 정치에 휩쓸렸으며, 모든 것을 내

려놓았다. 무상(無常)을 직감했다. 미얀마가 빛이 되었다. "티 없이 맑은 모습에 반했다." 국제불교지도자협의회를 조직해 운영을 맡아왔으니 미얀마와의 교류에 본격 나서기로 하고 친선협회를 구성했다. 2년 전에는 서울 청진동에 미얀마문화원(02-733-5665)도 열었다.

"우선 미얀마의 소수민족 청소년들을 위한 교육운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극빈 지역에 우물파기 운동도 펼쳤는데, 이 운동은 이후 여러 NGO의 사업으로 퍼져나간 것을 보며 보람을 느꼈습니다."

목탁스님은 "월 1만원을 후원하면 이들이 더욱 즐겁게 미래를 준비할 수 있다"면서, "한국불교가 국제사회에서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알리는 목탁 역할은 하겠다"고 말했다. 정성은 기자

東大 경주캠퍼스 수계대법회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정각원(원장 화랑)은 3월 31일 교내 문무관에서 교직원, 학생 등 1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8회 전 동국인 수계대법회를 봉행했다.

전계사 정련 스님(동국대학교 이사장)은 "부처님의 다섯 가지 계법은 우리들 스스로 지켜야 하는 가르침 즉, 불

자의 바른 행실"이라며 오계를 잘 지키 것을 당부했다.

노덕현 기자

청주 용화사 자선장터 열어

청주 용화사(주지 각연)는 4월 9-11일 벚꽃과 함께하는 불우한 이웃돕기 자선바자회를 개최한다. 이날 자선바자회에는 용화사 자비회 등에서 준비한 먹거리 장터와 불교용

품 전시전, 우리차 시음회, 목판인쇄체험 등이 열린다. 총 3일간의 판매수익금은 불우한 이웃돕기성금 및 신도운영위원회 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04)3274-2159 혜철 총정지사장

교직자 양성 전문교육

제74기 佛敎儀式 (범음·범패) 學人 모집

본 대학 불교의식 교육원에서는 학인을 모집합니다.

◆ 과정 (아간 및 통신생)

Table with 2 columns: Course/Level and Content. Rows include: 기본과정 (3개월) -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 다루는법, 도량식, 첫송, 상단예불, 각단에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중급과정 (3개월) - 상주권공, 대량관공, 신중작법, 지장청, 관음시식, 다비식 등; 작법반 (1년) - 요잡바라, 천수바라, 도량계, 다계작법(나비춤) 등; 신행과정 (1년) -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특수작법 (1년) - 기본·중급 수료자에 한 함

- ◆ 모집인원 : 30명 (선착순) ◆ 원서접수 : 2010년 5월 26일까지 접수
◆ 개강일시 : 2010년 5월 27일 매주 (목) 오후 5시 ~ 8시 (3시간)
◆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본원은 초중과 교육도량으로서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를 제공합니다.
※ 초심자라도 여법하게 불교의 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합니다.
※ 전화·서신 문의하시면 안내서를 보내드립니다.

海東佛敎儀式教育院
海東佛敎梵音大學

서울 종로구 낙원동 243-3 탑골공원 뒷편 ☎ 02)741-0495, 0496

기름값의 1/5 이하로 절약되는
슈퍼에너지 순간전기보일러

국내개발 1호!



기름값 대비
80% 이상 절감
심야전기 대비
1/2 이상 절감 효과

사찰, 포교당, 수련원, 교육시설, 복지시설, 호텔, 모텔, 펜션, 가든 등에 설치 최적합

사찰·포교당·불교시설 상담 대환영!!
전기보일러 15년 경력 전문가 직접 상담·시공 뛰어난 내구성, 30년 이상 반 영구적.

♣ 내 일처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불자 해봉 -

슈퍼에너지 순간전기보일러

공급원 : 서울시 강동구 길동 454-1 / 사무실 : 02) 471-2356
상담전화 : 1688-3346, 011-335-6389 www.superenertec.co.kr